산업통상자원부
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http://www.motie.go.kr

보도자료

희망의 대한민국
경제혁신 3개년 계획
3년의 혁신, 30년의 성장

2015년 2월 11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과 천영길 과장(044-203-4510), 민문기 사무관(044-203-4512)
미래부 과학기술정책과 신준호 과장(02-2110-2520), 한승연 사무관(02-2110-2524)

중소기업에 유망 공공기술 이전·사업화 지원을 위해 산업부-미래부 공동으로 수요발굴지원단 15개 운영키로

〔 제6차 산업부-미래부 차관급 정책협의회 개최(2.11) 〕

□ 산업부와 미래부 양 부처는 과학기술기반의 기업혁신 도약을 위해 **유망기업의 기술수요**를 **선제적으로 발굴**하여 **공공연구성과 이전,** 사업화 목적 연구개발(**R&BD**) **사업화 자금** 등 **수요 맞춤형 사업화 지원을** 추진하기로 했다.

○ **공공연구성과의 확산을 통해 기업에게 새로운 성장 전환국면(모멘텀)을 제공**해야 한다는 공감대 하에서,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**중소기업**이 필요로 하는 **기술 및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.**

○ 이를 위해 산학연 기술사업화 전문가로 구성된 **수요발굴지원단 15개 내외를 선정·운영하고,** 각 지원단별로 **지원할 중소기업 10~15개를 연결(매칭)**해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.

○ 미래부는 **수요발굴지원단 구성과 운영을 총괄**하면서, 미래부 **관련 사업** 및 연구회·출연(연)·특성화대 등 **산하기관에서 보유한 인력과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**하여 지원을 실시한다.

○ 산업부는 **수요발굴지원단 대상 기업 모음(Pool)을 제공**하고, 인력 유동성(Mobility)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인력지원, 사업화 목적 연구개발(**R&BD**)사업, 투·융자 지원 등**을 연계해 지원한다.**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와 **미래창조과학부**는 2. 11. (수) 07:30, 한국기술센터에서 **제6차 산업부-미래부 정책협의회**(산업부 이관섭 차관, 미래부 이석준 차관 참석)를 열고, 중소기업에 유망 공공기술 이전·사업화 지원을 논의했다.

○ 또한, 양 부처는 **센서산업 육성, 산업단지 클라우드 산업집적지(클러스터) 조성 미래유망 4대 분야(바이오, 기후, 나노, 안전) 원천기술개발 및 산업육성** 등에 있어서도 **적극 협력**하기로 했다.

□ 양 부처는 **사물인터넷**(IoT) 구현이 본격화되면서 **센서산업을 함께 육성**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.

○ 양 부처가 협력하여 **공공부문의 센서 적용 프로젝트**를 발굴·지원하고, **센서산업 육성방안**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.

□ 뿐만 아니라, **중소기업의 정보화 및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** 산업단지 클라우드 클러스터를 조성함에 있어 협력하기로 하고,

○ 금년에 산업단지 4군데를 선정하고 입주 중소기업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용하기 위하여 **산업단지 선정, 사업 진행 및 후속 지원 등에 협조하기로 함**

○ 또한 창업기업의 「죽음의 계곡(Death Valley)」 극복을 위해 **각 부처 창업지원 프로그램**을 **성장 단계별 지원체계** 등으로 **개편**하는 것을 검토하여 추진하기로 했다.

□ 아울러, 지난 1월 연두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**'4대 분야(바이오, 기후, 나노, 안전) 미래 먹거리 창출'**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**양 부처가 협력**하여 **원천기술개발에서 실증, 산업육성까지 묶어 지원**키로 했다.

○ 상반기 내에 **후속 대응전략 및 이행방안을 마련**하고, 공백기술 개발을 위한 **예산 확보 및 부처 공동사업 기획도 추진하기로 했다.**

□ 산업부-미래부 정책협의회는 **창조경제, 연구개발(R&D), 정보통신기술(ICT) 등 각 분야에 대해 발전적인 협력 방향을 논의**하기 위해 **지난해 6월에 출범한다.**

○ 그간 **5차례의 정책협의회**를 통해 **산업부 산업엔진과 미래부 미래성장동력의 실행방안을 공동으로 마련**하였으며, 연구개발(R&D) 제도개선 등 **각종 현안들을 논의하여 해결방안을 도출**해 왔다.

□ **산업부 이관섭 차관**은 "공공연구기관 등을 활용한 **수요발굴지원단 운영**을 통해 **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** 지원이 **실질적인 성과**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."라고 말했다.

□ **미래부 이석준 차관**은 "기업현장을 잘 알고 경험이 풍부한 산·학·연 전문가들이 **기술 수요를 직접 발굴함으로써** 정부 연구개발(R&D) 투자의 경제 기여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며 **특히 산업의 중추가 되는 중소기업의 역량 제고와 신산업 창출을 위해 양 부처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"고 강조했다.**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민문기 사무관(☎ 044-203-4512),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책과 한승연 사무관(☎ 02-2110-252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